한가위 감사예배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예 식 사 ····· **인 도 자**

오늘 이 시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앞서 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559장(통305)**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 **가족 중에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가위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지나온 시간을 되새겨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처럼 기쁜 날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불신의 눈을 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화목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 **창세기 12:1~3** ····· **맡 은 이**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 씀 ····· **"부르심의 뜻"** ····· **맡 은 이**

오늘 우리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생명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새로운 세상을 향해 전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75세의 늙고 약한 노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10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주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따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섰습니다. 알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과거의 나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죄가 깊은 역사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말씀이 선포되던 때는 지금부터 약 3천년 전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민족과 종족들 사이에 배타주의의 담장이 가로막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깊은 역사의 어둠속에서 빛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

라엘 역사는 때로 이 말씀의 의미를 왜곡해서 자신들만이 선택되었다는 오만한 선민사상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본 뜻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족속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끌어 가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월과 오만의 근거가 아니라 책임과 섬김의 근거입니다. 책임과 섬김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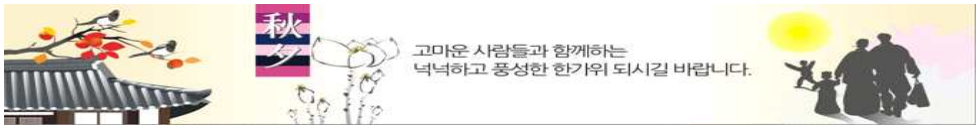
셋째, 복이 사라진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3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삶은 편리해지고 생활은 윤택해지고 있지만 행복을 나타내는 온갖 지표들은 정말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 복을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복을 탐하고 자신이 받은 복에 안주하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남을 위한 복을 지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저 옛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믿음의 자리로 불러 복의 근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분단의 땅에서 화해의 복을 나누는 사람, 경쟁과 갈등의 세상에서 상생과 일치의 복을 지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오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 송 ····· **478장(통78)** ····· **다 같 이**

1.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2.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3.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드리니 주 하나님의 큰뜻을 내 알듯하도다

아멘.

주기도문 ····· **다 같 이**



2018 추석명절 가정예배

한국기독교장로회
김포한신교회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87-51
☎031)985-4941